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은 항상 보다 나은 위치의 삶을 갈구하는 욕망의 동물이기에 남들이 더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조차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결핍은 어쩌면 평생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런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잔잔한 경인 같은 영화다.

안정된 직장, 맨하탄의 고급 아파트,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번듯한 남편까지 가진 저널리스트 리즈(줄리아 로버츠)는 어느날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 회의에 빠진다.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완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 밤의 여왕의 노래는, 리즈가 이탈리아 야외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이 아리아의 원제목은 '지옥같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인데, 복수심에 불탄 밤의 여왕이 딸 과미나에게 자라스트로를 죽일 것을 명령하는 노래다. 놀랍게도 노래는 가사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스파게티 식사 시퀀스와 완벽하게 합체하여 관객들의 식욕을 자극한다.

사실 이 아리아는 소프라노 음역의 한계를 시험하는 어려운 곡으로 실제로 이 곡을 완벽하게 라이브로 소화할 수 있는 가수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조수미의 노래가 사용되었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中 모차르트 '마술피리, 밤의 여왕 아리아'

스파게티를 위한 아리아

벽하지만, 결국 지난 삶 속에서 자신이라는 중요한 존재가 빠져있다고 판단한 리즈는 일, 가족, 사랑을 모두 뒤로 한 채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발리로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난다.

영화는 주인공 리즈가 이탈리아서 먹고, 인도에서 기도하고, 발리에서 사랑하게 되는 여정을 펼친다. 내용은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낯설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잊어왔던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넘지지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나를 찾는 여행'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수행의 순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극은 아무렇지도 않게 끝나버리지만 충격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다.

조수미는 이 곡을 가장 잘 부르는 소프라노 가운데 한 명으로 마술피리 밤의 여왕 역할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수미보다 다소 느긋한 템포로 이 곡을 잘 소화한 또 한 명의 소프라노는 체코 출신의 루치아 포프다. 느긋한 템포를 취해서인지 선이 다소 긁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연주다. 최근 녹음으로는 파트리샤 프티봉의 노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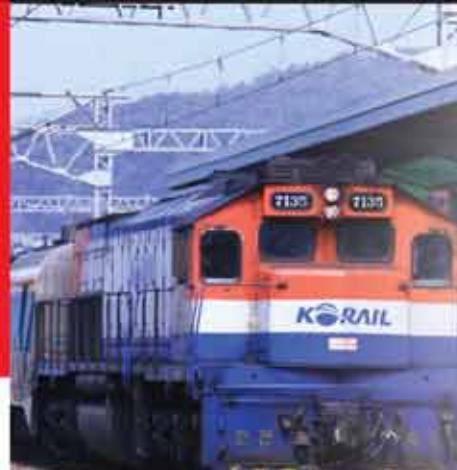
원전스타일의 날렵한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로 신선하고 고운 음색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조수미가 부르는 것 만큼 속도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주는のが 가장은 없다. 카리안조자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덧붙인 대한민국의 소프라노, 바로 조수미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겨울 기차여행 가족과 함께 하세요!

로맨틱 코미디 '루브', 내달 1일까지 예술극장 통

극단 '사람 사이'가 로맨틱 코미디 '루브'를 무대에 올린다. 12월 1일까지 예술극장 통.

한 여자를 각각 아내로 삼은 고교 동창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루브'는 머레이 쉬스갈의 원작으로 극단 대표인 송정우씨가 각색하고 연출까지 맡았다.

15년 만에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 해리와 밀트,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밀트는 사업에 성공해 큰 부자가 되었지만, 해리는 이상과 현실의 부적응으로 자포자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자살을 하려는 해리에게 밀트는 새로운 사랑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할 것을 권유하고,

그의 파트너로 자신의 부인 엘렌을 소개한다. 엘렌과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한 밀트가 새 애인과의 결혼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개한 것.

결국 밀트의 뜻대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하지만 엘렌이 무능한 해리에게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애인과의 결혼 생활에 좌절을 맛본 밀트도 다시 엘렌을 고리워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얹히기 시작한다.

송정우·박유정·이영환씨가 출연한다. 문의 010-2054-4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성친화마을 조성 워크숍

29일 광주여성재단

여성 단체·기관 협력사업인 '여성친화마을 조성 지원 사업 평가 워크숍'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사무실에서 열린다.

광주여성재단(이사장 이윤자)이 주최하

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새로운 구상', '오월 여성 아카이브', '여성운동과 역량강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등 협력사업 대표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또 현장 정책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2010년 협력형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062-670-05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생 80'의 터닝 포인트에서 고전 묵자를 통해 '내려놓음으로써 넉넉해지는 삶의 기술'을 들려준다.

수학자인 오카베 쓰네하루가 쓴 '마흔에 다시 읽는 수학'도 인생의 질반을 살아온 중년에게 수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게 하고 시인, 자기계발 강사인 김치영씨의 '마흔,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김팔봉 전'은 김팔봉이라는 가상의 주인공을 통해 자녀교육·직장 인간관계·부부 관계 등에서 빚어진 에피소드를 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인간 관계가 많은 나이라는 점에서 관계 모델링 책도 적지 않다.

'마흔에 꼭 만나야 할 사람, 버려야 할 사람'은 술 모임, 단골 술집, 영수증 쟁기기 등 '마흔에 버려야 할 40가지'를 제시하고 '진짜 인맥'을 만들기 위해 결심해야 할 5가지를 조언한다. '마흔, 인간 관계를 돌아봐야 할 시간'도 비슷한 데의 자기계발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고전 어우러진 빛고을 아리랑 '보정'

30일~12월 1일 남구문화회관

마지막 장에서는

모정(母情)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특히 고난과 고통에 빠진 인생사 앞에서는 더 보여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좋은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한다.

2012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단체인 박준희 밀레단, 김미숙 뿐만 아니라 한국무용단,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정경희·박정교·최지선·정숙희·정진우·최재현·김진경·박정은씨 등이 출연한다.

박준희씨가 총예술감독을 맡았으며 배창희, 조주현씨가 음악 작곡과 연출자로 참여했다. 문의 062-230-74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준희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전통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의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 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